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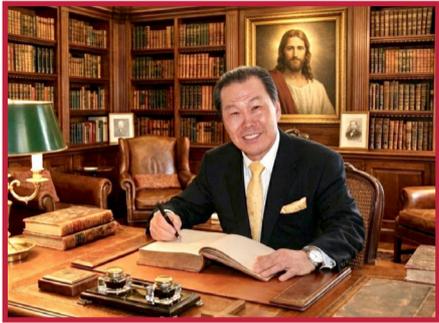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3월 29일 (제 1351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계획하는 삶

계획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계획한 자다. 계획 없는 하루가 쌓이면 계획 없는 인생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의도한 하루가 쌓이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고 했다. 물이 계속 흐르면 내가 되고, 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루의 계획이 반복되면 그것이 1년, 10년, 평생의 계획이 되어 꼭짓점 인생을 만들게 된다. 우리 하루를 계획해보자. 먼저 아침과 저녁, 각각 두 시간씩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자. 나는 평상시에 하루 4시간 기도를 한다. 요즘은 더 기도에 치중하고 있다. 기도는 기적의 산실이다. 왜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기에 그렇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기도로 흥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덟 시간은 성실하게 일하라.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믿는 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되자. 반드시 큰일을 맡게 되리라. 여섯 시간은 배우는 데 투자하라. 배움은 자신을 확장하는 시간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에, 배움을 멈춘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게 된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과 미래를 동시에 성장시킨다. 그리고 몸을 돌보고 즐겨라. 운동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누려라. 건강한 몸은 건강한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시간, 충분히 잠을 자라. 쉬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다. 쉬어주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 이 리듬을 타라. 일과표는 영·혼·육을 세우는 하나의 질서다. 기도로 영혼이 살아나고, 일로 삶이 세워지며, 배움으로 미래가 열리고, 운동과 쉬어봄으로 몸이 회복된다. 이렇게 균형 잡힌 하루가 쌓이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계획하라. 계획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그 성장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멕시코(Mexico) 몬테레이(Monterrey)는 한국의 목회자 영성세미나에 다녀갔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멕시코에서 많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8년 몬테레이 부근의 과달루페(Guadalupe)라는 도시에서 집회와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당시 스물다섯 청년이었던 엠마누엘(Emmanuel) 전도사는 목사님을 만난 이후 꿈을 키워더니 교회를 개척하여 18년이 지난 지금 담임목사로서 몬테레이의 중견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엠마누엘 목사는 공항까지 나와 목사님을 영접하고,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전혀 알지도 못하던 한 청년이 당신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고 16년 만에 이처럼 성장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보람이 크셨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역시 몬테레이 인근의 가르시아(Garcia)라는 도시에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엠마누엘 목사는 사모와 함께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하여 교회는 성장시켰는데, 마땅히 자신을 이끌어 줄 영적 멘토가 없다 보니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고심이 많았던 듯합니다. 그는 목사님께 답을 듣고 싶으며 1시간 넘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지는 스케줄이 있어 매우 바쁜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은 그의 질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듯,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심을 다해 답해주셨습니다. 엠마누엘 목사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현숙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엠마누엘 목사가 미국을 방문했다가 캔자스시티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해리건

(Juan Carlos Harrigan) 목사(위 집회 포스터 사진 중 왼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이초석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매우 놀라며 자신은 2004년 시카고(Chicago) 마라나타(Maranatha) 교단의 나훔(Nahum) 목사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이초석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전달받아 보게 되었는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하여 교회가 성장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 목사님을 모시려고 생각 중이었다며 엠마누엘 목사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해리건 목사는 즉시 이 선교사에게 연락하여 이초석 목사님을 미국의 중남미 목회자 세미나의 주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아메리카(America) 대륙에 나타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 날짜 : 3월 25일(수)~4월 3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5~20)

우리, 세계를 함께 복음화하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5).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본분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복음을 들고 직접 가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어 몸살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배낭에 초콜릿을 넣고는 거리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제가 잘 다니던 술집과 거래처도 찾아가 예수의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나보고 미쳤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2000년을 계기로 해외선교에 매진해왔습니다.

내가 나가 직접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아가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거리로 나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뒷일일랑 걱정하지 말고 많이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광고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며,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예수

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4~15)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使命)입니다. 사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을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 성경은 그 표현을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그 화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숫군을 삼은 그 사람이 같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겔33:2~4), 이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피 값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포를 놓으신 겁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달려가 그 아이를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1~2).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고의 말씀으로, ‘꼭 하라’는 당부입니다. 나가서 전파하고, 안 되거든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고도 하셨습니다.

둘째,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보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가 전

자, 뒤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물질로 헌신하며 사역을 돕는 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헌금이 있기에 제가 해외에 나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동일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찌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삼상30:24) 한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갚으십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8). 제가 각국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 일행도 함께 가듯, 머리 가는 곳에 다리도 가고 팔도 가듯, 나가서 전하는 자나 나가서 전하는데 조력한 자나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받을 보상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생을 전도의 일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고 말했듯이, 전도인이 받을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날에 상이 없다면 지금처럼은 안 삽니다. 조금 쉬고, 조금 편하게 목회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받을 면류관,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30)는 약속을 온전히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머리는 곳에 팔과 다리도 간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있기에 제가 마음껏 세계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저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일을 이뤘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곳곳하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계3:7~8). 우리, 세계를 함께 복음화합시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경배와 찬양 ::

믿음의 의지를 굳게 하자

우리의 영혼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육체가 병으로 고통스럽거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난다. 이것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 자기 영혼을 육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우선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 쉽다. 이처럼 병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해도 병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육체를 무용지물화 한다. 즉 하나님이 영혼에게 주실 그 은혜는 육체의 협조를 얻어야만 가능하기에 주님은 우리 육체의 병도 담당하신 것이다(사53:5).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마8:17).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죄에서, 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한다. 예수께서 ‘너의 죄는 내가 담당했으니 믿으라’고 하시지만, 마귀는 이를 못 믿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있다. 율법(양심)은 정죄하는 것이 그 임무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다(요 5:24).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끝까지 못 믿게 하려고 ‘지은 죄 때문에’라는 생각을 자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은혜보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 그 양심 때문에

좌절하게 만든다. 또한 마귀는 예수가 우리 병을 담당하셨다는 것도 못 믿게 한다. “네가 병든 것은 체질 때문이고 현실이다. 의학적인 사실을 다른 어떤 신념이나 신비주의 같은 미신을 통해 나오려고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못 믿게 유혹한다.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마치 미신이나 신비주의처럼 오도하고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병을 짊어지신 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 것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네가 병에서 자유하여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래야 죄에서 자유하고 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이 믿음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죄에서, 병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약속은 온 인류에게 전파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사실을 증거하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자!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의 능력 또한 동일하시다.

신기류 목사

골(Goal)을 만드는 목표

“일거리를 만들고 목표를 세워서 골을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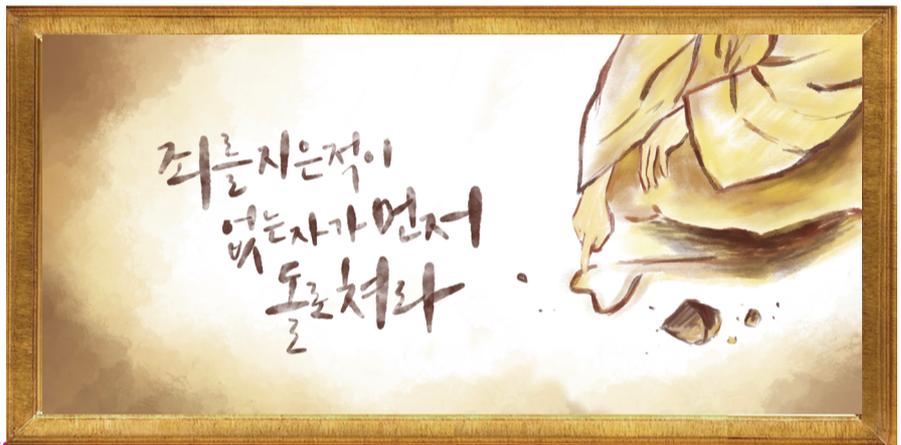
총회장 목사님께서 최근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목표를 만들어 그것을 이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봤습니다. 막상 돌아보니 제 목표는 흐릿해 보였습니다. 골을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체크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50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는 10년 뒤의 계획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고, 거기에 맞춰 먼 미래의 계획까지 세우고 실행해 가시는데, 저는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목표를 세웠음을 깨달았습

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 시야를 넓히고, 경험을 쌓고, 부단히 공부해야겠다고,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보겠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총회장 목사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목적의식을 명확히 하고 따라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4월에 들어섰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26년을 마무리하며 2027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올해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셔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가 되길, 또 우리 예수중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고전10:31).

윤에녹 전도사



:: 빛과 소금 ::

:: 낮은 울타리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반복하셨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 아닐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기준은 단순하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이다. 사랑은 결국 시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자. 혹 어느 순간,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나 기도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사랑을 떠올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진다. 함께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내가 무얼 사랑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사소한 일도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매일매일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나는 아이들과 자기 전에 항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말하는 시간을 가진다. 큰딸은 매일 감사 제목이 바뀌지만, 둘째 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

오늘은 다른 걸 말해보라고 해도, 변함없이 같은 대답을 한다. 그런 줄 알면서도 나는 또 묻는다. 매일 들어도 기쁘고, 여전히 감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고백을 자주 듣길 원하시고 들으실 때마다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선택, 삶의 방향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송지혜 집사

회개하게 하신 이유

얼마 전 ‘예수님께 시선 집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부서 친구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제를 준비한 저는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바쁜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시선을 집중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 안에서 목표 가지기, 그리고 진리의 말씀 기억하기. 그런데 기도 중에 또 하나 ‘회개하기’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과 회개하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걸 주신 것이 처음엔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모임 막바지에 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정확히 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회개하기’를 주신지 모르겠다. 하지만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실 것 같으니 우리 회개해보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 회개를 통해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섬기고 있던 수많은 우상, 이 교제를

인도하는 저의 자격 없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신 은혜 등등, 제가 가진 약함과 악함, 그리고 은혜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우상들을 없애겠다고. 또 제가 받은 크나큰 은혜를 헌신으로, 봉사로, 또 영혼의 달란트를 남김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전부터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수적 부흥도 그렇지만 영적 부흥도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통해 낮아지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날 회개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 봅시다. 당장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할지 몰라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장수정

:: 간증 ::

:: 빛이 되리라 ::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등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성인이 되고 직업상 주일에도 일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2014년부터 장로교회에 다니게 되어 13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여 뭔가 해소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11월 19일, 극심한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해 CT를 찍어보니 요로결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7cm나 되는 결석이 요로에 걸려 쇠석을 4번이나 받았는데도 깨지지 않았고, 옆구리와 아랫배 전체에 통증은 날로 심해지고,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져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제쯤 치료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컸던 때에 친정엄마의 부탁으로 김정옥 전도사님이 심방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해주셔서 은혜의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 아버지가 제 곁에 임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친정엄마를 따라 예수중심교회가 88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길래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전도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면서 안아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받고자 이초석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 제 상황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선영이 결석이 있어요. 4번 쇠석했는데 안 깨졌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라고 하자 목사님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라고 기도해주셔서 ‘아멘, 아멘’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026년 1월 16일, 진료 결과 7cm였던 결석이 반으로 깨져 반은 나오고 남은 몸속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결석이 나옴에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심령의 목마름이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맘껏 소리쳐 찬양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 감동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11일, 목사님께 두 번째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해주시길 때, 저는 ‘아멘, 아멘’ 외쳤고, 목사님은 어린양을 대하듯이 강함 속에 부드러움과 인자함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예배 중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불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기도에 집중하는 순간, 뜨거운 강한 바람이 얼굴로 불어와 어두운 하늘에서 노란빛의 빛줄기가 쏟아지더니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란 생각이 들었지만,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이 넘쳐흘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2월 13일 요로결석 검진 날, 반이 남아 있던 결석이 없어졌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기도의 부흥, 영의 부흥, 은혜 충만을 위해 간곡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이초석 목사님, 전도사님, 백 조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선영 집사**

아버지의 사랑

얼마 전 SNS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자녀의 눈에 각막이 얹어지는 병이 생겼다고, 곧 실명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각막을 기증받으면 볼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은 아버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자기 각막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었죠. 내가 어떻게 받냐고. 그러자 아버지는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뭘 못 해주겠니?”하며 한쪽이 아니라 두 쪽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았어요. 나 같아도 자식에게 주겠다고. 눈이 아니라 심장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훔치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에서도 같은 마음을 봅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갈 테니 우리 성도들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신 말씀을 초월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지 늘 체크하고,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영·혼·육의 복을 가장 적합한 때에 부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멋진 자녀가 됩시다. **장명훈 집사**

인천 청소년 전도집회 4월 11일(토) 오후 2시,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

:: 동행하는 삶 ::

천국 소망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생긴다.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모님 들께서도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 걱정도,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다. 아이가 다쳐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걱정과 함께 불안한 마음도 들고, 부모님께 어떤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오면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간다. 얼마 전에 아이가 독감에 걸린 데 이어 장염까지 걸리는 등,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니 조마조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뉴스를 보면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불안감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는 마음에 불안함이 너무 커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희를 지켜주세요,

늘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던 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찬양을 듣고 부르는 순간 마음에 걱정과 불안은 모두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마음이 평안해지며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이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배우 이성경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배우로서 성공하고 인기는 많았지만 마음 한편이 늘 허전하고 무기력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성경 씨의 할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성공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없었다고 한다. 그냥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이 80, 혹은 100세라고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품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서 보니 점 하나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안고 있던 무기력함과 짓누름이 분해되어 버렸다고 한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 하나인데... 점 하나 인생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왜 놀려있지?”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4:18).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 천국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한다. **정효경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